나주, "근로자 인권도, 농가도 지킨다"…계절근로 고용주 교육

지사협, 어르신들과 가을 나들이 즐겨



나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확대에 대비해 고용 예정 농가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안정적인 계절근로 환경 조성에 나섰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에는 2027년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409명이 참여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임금과 근로시간, 주거환경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농가가 관련 노동관계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나주시에서도 2027년 400여 농가가 약 1500명의 계절근로자 고용을 신청하는 등 농촌지역의 계절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는 본격적인 근로자 배치에 앞서 고용주가 관련 제도와 노동관계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시 자체적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안내에 그치지 않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동감독관과 농협중앙회 소속 공인노무사를 전문강사로 초빙해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서성택 기자

담양군, 제19기 농업인 대학 졸업식 개최

담양군(군수 박종원)은 30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졸업생 33명과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9기 담양군농업인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은 공로상 표창과 축사, 졸업장 수여, 우수 수료자 과제 발표, 졸업생 소감 발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농업인대학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딸기 시설재배와 블루베리 수경재배 등 2개 과정을 운영했으며, 총 35회에 걸쳐 140시간의 교육을 진행했다.

딸기 과정에서는 생육 시기별 재배기술과 양액관리를, 블루베리 과정에서는 품종별 특성과 재배 방법, 유통·판매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 소나무재선충병 강도간벌 방제 사업 추진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강도간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과 확산 우려 지역 주변의 소나무림을 대상으로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지는 춘양면 양곡리와 이양면 오류리 일원으로, 총 25.82ha 규모다. 군은 춘양양곡지구 6.5ha와 이양오류지구 19.32ha 등 2개 지구에서 강도간벌을 실시하고, 벌채목은 현장에서 파쇄 처리할 계획이다.

군은 선제적 방제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산림을 보호할 계획이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성황리 개최

2026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로 지역 고용 활성화



영광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모습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10월 29일(목) 영광 문화원 1층에서 관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2026 영광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인 일자리 두드림(Do Dream) 취업연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는 현장 참여기업 및 간접참여기업 등 총 2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행사장에서는 기업 인사담당자와 구직자 간 1:1 현장 면접을 진행하고, 일자리정보관을 통해 맞춤형 취업상담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등 구직자의 취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청년센터, 새로 일하기 센터 등의 일자리 유관기관의 주요 사업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증명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마련하여 구직자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행사 참여도를 높였다.

영광군 관계자는"관내 기업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이번 행사가 기업과 구직자 간의 만남을 넘어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구직자 맞춤형 취업상담과 채용정보 제공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진 기자

장성군, 내년도 고향사랑 기금사업 4건 확정

돌봄·경로당 지원부터 유소년 야구대회까지

장성군이 내년에 고향사랑기금으로 추진할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금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고향사랑 간식비 지원 △어르신 소파 지원 △고향사랑 생필품 배후마을 전달 서비스 △고향사랑 유소년 야구 스토브리그 개최 총 4개 사업이다.

'다함께돌봄센터 고향사랑 간식비 지원'은 지역 내 다함께돌봄센터 3곳에 간식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별도의 간식비가 지원되지 않아, 해당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어르신 소파 지원'은 경로당 등 노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소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닥에 앉고 일어서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은 만큼, 호응이 예상된다. 수요 조사를 거쳐 총 100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향사랑 생필품 배후마을 전달 서비스'는 상점, 마트 등 생필품을 구입할 곳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주민들이 필요한 물건을 미리 주문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이동차량을 운영한다.



돌봄센터와 어르신 지원 활동 모습 /장성군 제공

'고향사랑 유소년 야구 스토브리그'는 장성호 생활체육공원 야구장을 활용해 유소년 체육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사업이다.

전국 유소년 야구단을 초청해 대회와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선수단이 숙박과 음식점을 이용하면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지정기부사업인 '조정꿈나무 경기정 지원'은 목표액인 1억 70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 모금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했다. /김재섭 기자

